



#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5期(2026.01.30) WWW.MINGHUI.ORG

한글판 1039호 minghui.or.kr



▲ 선원 8개 예술단이 동시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5개 나라에서 공연을 펼쳤다. 선원국제예술단이 프랑스 루앙 제니스 극장에서 5회 공연을 펼쳤는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 주요내용

- 【중국소식】 중공중앙 610사무실 전 부주임 가오이천 기소돼, ...
- 【수련교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가
- 【수련교류】 중공 공검법의 사건 처리에 대응하는 몇 가지 사고방식
- 【수련교류】 오만한 자는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 〈목 차〉

###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	3
----------------------------	---

### ■ 중국소식

중공중앙 610사무실 전 부주임 가오이천 기소돼, 심각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 .....	7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	9

### ■ 수련교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가 .....	13
중공 공안·검찰·법원의 사건 처리에 대응하는 몇 가지 보편적인 사고 방식 .....	16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선량함을 지키다 .....	23
오만한 자는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	32
이기심과 자아를 제거하다 .....	36
파출소장 “서명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	43
‘모기가 나를 물지 않는다’에서 깨달은 점 .....	48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견 .....	51

### ■ 시사평론

연금 지급 중단: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노인에게 가하는 비폭력 이지만 치명적인 박해 .....	55
가오이천 사건 기소와 중국 ‘610사무실’의 제도적 유산 .....	62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선원 8개 예술단이 동시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5개 나라에서 공연을 펼쳤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루앙, 폴란드 루블린에 이르기까지 선원은 순수한 예술의 아름다움과 깊은 문화적 내면으로 관객에게 마음의 정화를 선사하며, 속세를 벗어난 ‘영혼의 여정’에 오르게 했다. 이는 마음의 정토(淨土)로 돌아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회귀하게 했다.

선원국제예술단은 프랑스 루앙 제니스 극장(Zenith de Rouen)에서 진행한 5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다. 추가 공연이 편성됐음에도 두 달여 앞서 모든 티켓이 매진됐다. 미국 선원글로벌예술단은 영국 런던 해머스미스 아폴로 극장(Eventim Apollo)에서 주말 사흘간(1월 16일~18일) 진행한 4회 공연을 모두 조기 매진시켰다. 관객들의 열띤 문의가 이어지자, 주최 측은 당초 판매하지 않았던 가장자리 좌석을 추가로 개방했다. 1월 13일부터 선원뉴욕예술단은 이탈리아 밀라노 아르침볼디 극장(Teatro degli Arcimboldi)에서 2주간 14회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모든 공연 티켓이 매진됐다.

밀라노 시의원 프란체스코 로카(Francesco Rocca)는 선원 공연이 지닌 풍부한 내면이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깊은 내면이 있어야 훌륭한 작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원은 내면이 깊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연은 관객의 뇌리에 깊이 각인돼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어 그는 “저는 공연에서 구현된 ‘진선인’의 가



치관을 체득했습니다. 모든 관객 역시 평온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안녕을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원 예술가들은 이러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모든 관객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연에서 드러난 파룬궁 박해 진상은 로카 의원에게 큰 안타까움을 안겼다. “서방 민주국가들은 이 점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이에 대해 더 많은 규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파룬궁수련자 단체에 대한 탄압과 사람들이 직접 보고 알게 된 진상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선원의 폴란드 4개 도시 14회 공연 역시 모두 막을 내렸으며 전 공연 티켓이 조기 매진돼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현했다. 폴란드 국회의원이자 유명 배우인 도미니카 호로신스카(Dominika Chorosińska)는 “찬란한 색채가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끼게 했고 마치 천국과도 같은 세계에 있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연은 ‘진선인’과의 만남이자 중국 수천 년 전통과 역사와의 만남이며 오늘날의 현실과 어우러진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라고 감탄했다. 그는 또 “공연은 매우 깊이 있고 훌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색채가 풍부하고 음악이 아름다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여정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남편 미하우 호로신스키 역시 폴란드의 저명한 배우로 공연이 열린 루블린 문화회의센터의 총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공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넘어선 어떤 ‘존재’, 더 위대한 존재인 창세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수도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 텍사스주 댈러스, 루이지애나주 메타이리까지 이어진 공연이 만석 및 매진되며 대성황을 이뤘다.

2026년 병오년(丙午) 설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1월 18일, 싱가포르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머라이언 공원에 모여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미리 새해 인사를 드렸다. 모두 합창하고 한목소리로 “싱가포르 대법제자가 사부님께 새해문안드립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외치며 마음속 깊은 감사를 진실하게 표현했다. 수련 전 거의 마비 상태였던 후(胡) 씨는 말했다. “2013년에는 허리도 움직일 수 없어 거의 마비됐고,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어요. 동시에 우울증까지 앓아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죠. 그때 가족들이 몰래 제가 35세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거듭 그녀에게 대법을 배우라고 권하자 아무런 기대나 추구 없이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스스로 땅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문하다가 다시 회상해보니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제야 제가 나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 (Rotterdam) 블랙 기차역에 위치한 대시장은 말발굽 모양의 건축물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노천 시장은 끊임없는 방문객을 매료시킨다. 파룬궁수련자의 진상 거점은 시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Vlasmarkt)에 있다. 이곳에서 수련자들은 파룬궁의 5가지 공법 동작을 시연하고,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된 진상 전단을 증정하며, 관광객들에게 파룬궁의 특징 및 중국 수련자가 겪고 있는 박해를 알리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중지와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 중지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호소했다. 카마라(Kamara), 아니타(Anita), 폴라(Pola)는 자매 사이로, 세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수

련자들이 시연하는 파룬궁 공법을 집중해서 관람했다. 파룬궁수련자가 전하는 진상 정보를 들은 후, 세 사람 모두 생체장기적출을 반대하는 ‘G7+7’ 청원서에 서명했다. 카마라가 말했다. “인터넷에서 이 소식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 서명이 이러한 박해를 중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법을 보니 매우 좋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왜 중국에서 금지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폴라는 “여러분의 공법은 매우 아름답고 평온해 마음에 듭니다. 이러한 박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즉시 중단돼야 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026년 1월 19일, 미국 오하이오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학회가 오하이오 역사센터(Ohio History Center)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기념일(MLK Day) 개방일 행사에 초청받아 참가했다. 파룬따파 학회는 행사에 참가해 파룬따파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다각도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상징하는 특별한 순간인 마틴 루터 킹 기념일에 정의와 양심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공명을 성공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인권기구 관계자는 더 많은 박해 사례를 더 깊이 이해하길 희망했고, 앞으로 대중에게 중국공산당(중공)의 인권 유린 만행을 폭로할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룬궁수련자는 지역 주민에게 ‘진선인’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수련 공법을 소개했고, 많은 시민은 현지 파룬궁수련자가 제공하는 무료 공법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 기간 ‘오하이오 미디어(Ohio Media)’의 한 사진기자는 공법에 깊이 공감했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사에서 파룬따파를 소개해달라며 수련자들을 초대했다.

## 중공중앙 610사무실 전 부주임 가오이천 기소돼, 심각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

[명혜망] 2026년 1월 20일, 관련 부서 통보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전 부부장이자 중앙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전 부주임 가오이천(高以忱)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관련 대우가 취소되고 위법 소득이 몰수됐으며, 범죄 혐의 및 관련 재물은 검찰 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심사, 기소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가오이천은 남성으로 1950년 10월 출생이고 헤이룽장성 하얼빈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언론 계통에서 근무하며 ‘광명일보’ 주소련, 주미 기자를 역임했고 이후 국가안전계통에 들어가 국가안전부 부부장 등 직무를 역임했다. 2005년부터 가오이천은 중앙610사무실 부주임을 겸임했고 동시에 중국공산당(중공) 중앙정법위 부비서장, 중앙안정유지공작소조 사무실 부주임 등 직무를 맡았으며, 다수 ‘반사교(反邪教)’ 관련 조직에서 고문 직무를 맡았다. 2017년 은퇴했다.

가오이천은 2025년 6월 관련 부서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 기소는 이 사건이 사법 처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 610사무실의 배경

중공중앙 610사무실은 정식 명칭이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로 1999년 6월 10일 설립됐으며, 이는 중공중앙이 파룬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 기구다. 이 기

구는 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원회 시스템 내에 대응 기구를 설치했으며 통상적으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시스템에 의존해 운영된다.

2018년 3월, 국제적인 박해 반대 압력하에 중공중앙은 관련 기구에 대해 조정을 진행해 원래 ‘610’, ‘사교(邪教) 문제 방법 및 처리 영도소조’ 및 그 사무실을 명의상 철폐 및 병합하고 관련 기능을 중앙정법위와公安 시스템으로 귀속시켰다.

## 재임 기간 끊임없는 논란

해외 파룬궁 정보 웹사이트 ‘명혜망’이 공개한 정보 통계에 따르면 가오이천이 중앙 610사무실 부주임을 맡았던 기간(2005년부터 2015년) 전국 범위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 불법 판결, 강제노동 및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웹사이트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7월 10일까지 수집 및 확인된 파룬궁수련자 사망 사례는 4322건이며 동시에 대규모 구금, 강제노동, 불법 판결 및 기타 강제 조치 데이터가 기록됐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주로 민간 수집과 확인 경로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 당국의 정식 공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명혜망은 또 가오이천 재임 기간 적어도 1272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구금, 강제노동, 감금 또는 소위 ‘법제교육’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폭로했으며 여러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공표했는데, 여기에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베이징, 산둥성, 허베이성, 후난성 등 여러 성(省)·시(市)가 포함된다.

이런 사례 중 일부 사망자 가족 및 목격자는 관련 인원이 구치소, 감옥, 노동수용소 및 세뇌반에서 구타, 전기충격, 강제 약물



투여 등 행위를 당해 단기간 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신은 가족이 충분히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장됐다.

## 사법 책임 추궁의 현실적 의의

최근 몇 년간 반부패 활동이 추진됨에 따라 정법 시스템 및 610 체계에서 재직했던 다수 관리가 잇따라 조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저우융강(周永康), 리둥성(李東生), 평보(彭波) 등이 포함된다. 가오이천의 기소는 610 체계의 역사적 과오 및 관련 책임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현재까지 당국은 아직 가오이천 기소의 구체적 죄명과 사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사법 기관의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랴오닝 진저우시 관할 링하이시 파룬궁수련자 루쭈핑(盧素平·여·69세)과 그녀의 아들 장난(姜楠·남·45세)이 2025년 6월 2일 링하이시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각각 진저우시 여자 구치소와 링하이시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당했다. 12월 26일 모자 모두 링하이시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죄명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벌금 1만 5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일찍이 2013년, 루쭈핑과 장난은 링하이시 법원에서 비밀리에 각각 3년 6개월과 3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랴오닝 여자감옥과 선양 제1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당했다. 2025년 6월 2일 오후 1시 40분,

장난이 학원 수업을 위해 외출하려고 문을 열자 사복 경찰 3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집 안에는 루쭈핑과 다른 파룬궁수련자 왕옌제(王艷傑·여·67세), 뉴팡(牛芳·여·53세)이 함께 법공부를 하고 있었다. 4명은 링하이시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심문을 받았다. 왕옌제와 뉴팡은 10일간 불법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고, 루쭈핑은 진저우시 여자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장난은 링하이시 구치소에 계속 구금됐다.

산둥성 린이시 이수이(沂水)현 파룬궁수련생 리이팡(李宜芳), 마화이전(馬懷珍) 부부, 그리고 리위쥐안(李玉娟), 후이샤오리(惠曉麗) 모녀가 2025년 4월 1일 이수이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에게 납치, 약탈 및 모함을 당했다. 이후 그들은 이난현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돼 이난현 법원으로 넘겨졌으며, 10월 14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6년 1월 19일, 변호사가 판결문을 수령했다. 마화이전은 징역 5년과 벌금 5만 위안(미납)을 선고받았다. 리이팡은 징역 1년과 벌금 1만 위안(미납)을 선고받았다. 리위쥐안, 후이샤오리 모녀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서 마화이전 접견을 요청했을 때, 그녀가 이미 비밀리에 지난 감옥으로 이송됐음을 알게 됐다. 리이팡은 현재 이수이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으며, 리위쥐안, 후이샤오리 모녀도 이미 지난 감옥으로 납치됐다.

허베이성 탕산시 러팅현 성구 파룬궁수련자 리옌핑(李艷平)은 2025년 2월 15일, 경찰이 문을 따고 집 안으로 침입해 강제로 납치된 후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탕산시 환난현 법원은 이미 그녀에게 불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리

옌핑은 과거 심각한 허리디스크를 앓아 병세가 심할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생활도 스스로 돌볼 수가 없었다. 1998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병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얼굴색이 붉어지고 온몸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처신해 이웃과 동료들의 칭찬을 듬뿍 받았다.

네이멍구자치구 츠핑시 위안바오산구 위안바오산진에 거주하는 70대 파룬궁수련자 자광린(賈廣林)이 4개월간 불법 감금된 후, 위안바오산구 법원으로부터 억울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모함 과정은 아직 외부에서 알 수 없다. 2025년 9월 18일, 시민들에게 파룬따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자광린은 안칭거우로 가서 진실을 알렸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평수이거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위안바오산구 구치소(핑좡 소재)에 불법 감금됐다. 위안바오산구 공안·검찰·법원의 공모 박해하에, 2025년 11월 25일 위안바오산구 법원은 그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랴오닝 다롄 와팡톈시 바싼광장 부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파룬궁수련자 다이란추(代嵐秋)는 2025년 7월 25일경 자택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다롄시 여자구치소에 감금됐으며 가족 면회가 불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현재 다이란추는 이미 선양감옥으로 불법 이송됐으며, 억울하게 2년형을 선고받고 가족 면회가 금지된 상태다.

랴오닝 진저우시 파룬궁수련자 자오쯔창(趙自強)이 2024년 12월 27일 오전 8시, 진저우 제분공장 인근에서 진상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주민위원회 인원의 악의적인 신고로 진테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으며, 이후 강제로 ‘처분보류’돼 집에 머물렀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2시, 링하이시 법원은 자오쯔창에 대한 모함 사건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법정에서 자오쯔창은 자신의 무죄를 명확히 진술하며 재판 자체가 위법임을 지적했다. 11월 19일, 링하이시 법원 판사는 여전히 사실과 법률을 무시한 채 자오쯔창에게 억울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6년 1월 7일, 그녀는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광둥성 제양시 파룬궁수련자 우옌나(吳燕娜)는 2025년 4월 5일, 제양시 공안국 제둥(揭東) 분국 국보 대대, 원루 파출소, 취시 파출소 경찰들에게 가택 납치와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그녀가 제둥구 원루진 베이양촌에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이후 우옌나는 제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모함을 받았으며, 2025년 말 제둥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우옌나는 원래 제양시 제둥현(현 제둥구) 메이강(梅崗)중학교의 영어 교사였다. 그녀는 여러 차례 납치와 불법 감금을 당했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광둥성 여자 감옥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은 바 있다.

##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많은 수련생이 아마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매번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할 때면 잡념이 끝없이 떠오르며 이 일 저 일이 마음속으로 밀려든다. 이때 법공부해도 법을 얻지 못하고 정념도 강하지 않으며 연공은 형식에 그쳐 헛되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주의식(主意識)이 맑아질 때는 단번에 깨닫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잡념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잠시 후면 또 그렇게 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 이 일에 대해 개인의 얕은 인식을 말해보고자 한다.

내가 연공을 하고 있는데 ‘냉장실에 있는 소시지는 냉동실에 넣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상할 거야. 지금 넣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냉장고로 갔다. 매번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할 때면 생활 속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떠오르고 잠시 후에는 이 일을 생각하고 또 잠시 후에는 저 일을 생각한다. 왜 꼭 이때 떠오르는가. 이는 분명 사악한 것이 당신의 대뇌에 이런 정보들을 집어넣어 당신을 교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할 때 이런 좋지 않은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일사일념(一思一念)에서부터 사악한 것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사일념은 바로 사악한 것이다. 당신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 그것에게 통제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그것



들과 한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일사일념에서부터 그것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협조하지 말고 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 주의식이 이 신체를 주재하게 하여 외부 정보의 지시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며 시키는 대로 행동해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사법(邪法)을 연마(練)한다고 한다. 무엇이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는 것인가? 즉 사람이 모르는 정황하에서 사법을 연마함이다. 이런 일은 아주 보편적이며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다. 바로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연공(練功)함에 사상이 바르지 않은데, 당신은 그가 거기에서 참장(站樁)을 하는 것을 보라. 지쳐서 손을 떨고 다리도 후들후들 떠난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한가하지 않은데, 그는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려 하는데, 나는 좀 사야겠다. 연공(練)이 끝나면 나는 바로 가서 사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값이 올라버릴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나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잡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나 개인의 이해로는, 수련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속인의 각종 관념 교란 속에서 그것이 과연 자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진아(眞我)’로 자신을 주재하며 수많은 ‘가아(假我: 가짜 나)’를 하나하나 이겨내는 것이다. 절대로 사악한 것이 보내오는 교란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를 교란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법을 들어야 한다. 마지막에 주의식이 강하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 수련이 헛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다. 주의식이 강하지 않거나 때때로 자신을 느슨하게 할 때 사악은 틈을 타 들어온다. 이때 그것은 당신을 미혹시키며 가상을 연출하는데 이때는 바로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관건이다. 며칠 전 나는 계속 입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었다. 이때 외부 정보가 들어왔다. ‘혈당이 높은 증상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보고 혈당이 높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찾아보았다. 이것은 인정하고 추구한 것이 아닌가. 사부님께서 “진짜로 수련하는 사람은 병이 없다”(파룬따파의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휴대폰으로 찾아본 것은 병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사악은 계속 가상을 연출하며 점점 더 진짜처럼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단번에 그것을 간파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위대한 신인데 어찌 이 가상에 미혹될 수 있단 말인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병’이란 이 글자를 꺼내기만 해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전법륜) 나는 생각했다. ‘사부님께서 병이 없다고 하셨으면 없는 것이다. 병이란 사람의 생각이 아닌가. 이것은 사부님을 믿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신에게 어떻게 병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병이 없다. 나는 오직 사부님과 대법의 관할만 받으며 사악의 관할은 받지 않는다. 대법은 전능하다. 이것은 전부 가상이다.’ 내가 머리가 맑아지고 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자 몸이 매우 가벼워졌고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던 증상도 사라졌다.

그러므로 나는 평소에 우리가 반드시 법공부를 많이 하고 주의식을 강하게 하며 외부 정보가 우리를 교란할 때 반드시 법으로 대조하고 법에서 인식하며 반드시 사부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야 수련의 길에서 굽은 길을 적게 갈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최근 법공부하며 얻은 약간의 얇은 인식이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지적을 바란다.

## 중공 공안·검찰·법원의 사건 처리에 대응하는 몇 가지 보편적인 사고방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을 바르게 활용해 중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쉬운 말로 얘기해 보겠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형사 박해는 공안, 검찰원, 법원이라는 세 개의 구체적인 부서와 관련이 있다. 물론 막후의 결정권자이자 조종자인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도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공안은 사람을 체포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곳이고, 검찰원은 이른바 ‘법률’을 빌려 체포를 승인하고 기소하는 곳이다. 검찰원이 잘못 잡았다고 판단해 체포를 승인하지 않거나 불기소하면 공안은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 검찰원이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죄명과 형기를 제안해 이른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증거들과 검찰원의 의견을 결합해 판결을 내리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에서 지내고,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감옥으로 보낸다. 대략 이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공안의 가장 하부 조직인 파출소에 대해 말해 보겠다. 파출소는 상급의 명령[예를 들어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의 통지를 받은 경우]이 있거나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만 출동하며 일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다. (어떤 신고 사건은 상급에 지시를 구해야 하지만 지시와 승인 시간이 매우 짧다.)

중국에서 일반 민중은 관리와 경찰을 두려워하고 많은 수련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이 생기면 멍해진다. 경찰을 마주했을 때 우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심리적 자질이 단단해야 하며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심리전이다.

내 예전 동료가 파출소에서 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인데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녀가 예를 들어 말하길, 혐의자를 데려간 후 ‘자백’을 받기 위해 먼저 의지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바로 지하실이나 작은 암실에 가두고 두려움을 느끼게 한 후 3일 뒤(공안기관은 사람을 체포한 후 반드시 48시간 내에 구치소로 보내야 하고 48시간을 넘기면 당사자는 보통 거주지 감시로 지정됨) 심문하러 온다. 그때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든 말하게 된다고 한다. 그녀가 말하길 어떤 피고인은 가족이 공안이라 이런 수법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결국 무죄로 석방됐는데, 나중에 경찰이 뒤에서 그녀의 심리적 자질이 정말 좋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경찰에게는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백을 받는 것이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는데(물론 이것은 불법이며 단독 증거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 행정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는 모두 법률의 허울을 쓰고 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서를 작성해 자백을 받는 것도 관건이다. 요즘 이 사람들도 상대를 봐가며 대응한다.

자백을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순박한 사람을 보면 책상을 치고 눈을 부라리며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겁을 주지만, 사실 사방

에 감시카메라가 있어 경찰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다. 그들의 목적은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 명은 겁을 주고 한 명은 달래는 식으로 회유하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협조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자백만 하면 바로 집에 갈 수 있다거나 유죄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이는 모두 공안기관이 사람을 속이는 상투적인 수단이다.

일반인들 사이에 “자백하면 너그럽게 처벌한다는 말만 믿다가는 감옥에서 썩는다”는 말이 있다. 판결은 법원의 책임이고 공안은 수사해서 증거를 찾는 것인데 어떻게 판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공안은 증거가 부족할 때 자백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라며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그들은 결코 당신의 무죄 증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니 자백을 유도해 이른바 ‘범죄 증거’를 끼워 맞추려는 것이다. 이때는 어떻게 대답해도 틀리고 말을 많이 할수록 허점이 커져서 경찰은 더 기뻐한다.

법적 절차로 볼 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공안인데 왜 당사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가? 이때는 “증거 수집은 당신들 공안이 할 일이 아닙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라고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어떤 질문에든 직접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묻는 대로 답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할 일(진상 알리기)을 하고, 그는 그의 할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가 박해를 하고 있으니 절대 그의 생각을 따라 어떤 질문에든 대답하면 안 된다. 질문과 상관 없는 대답을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공안 단계에서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 기관 수사관은 사건 정보를 누설할 수 없는데 이는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찰이 말을 아끼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 처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 변호사는 당사자를 접견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당사자는 수사관 등 접촉하는 중생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고, 밖에 있는 친척들은 관련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진상을 알릴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직접 써야 하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출력만 해서는 안 된다. 명혜망의 진상 편지를 참고하되 마음에서 우러나와 정성껏 써야 하고,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서는 사람을 구하는 효과가 다르다. 다 쓰면 EMS로 보낼 수 있는데 좀 비싸지만 확실히 전달된다.

내 주변에 한 수련자 가족이 납치됐는데 처음에 그녀는 인터넷에서 선을 권하는 편지 한 통을 베꼈다. 우리가 보기에다 감동이 없어 직접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녀가 직접 편지를 썼고 우리는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니나 다를까 공안 관련 인원들에게 우편 발송 후 효과가 매우 좋았다. 당시 그녀는 편지를 너무 길게 쓰지 않고 매번 마음에서 우러나와 쓰며 한 가지 요점을 잡아서 쓰고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결과 첫 번째 편지를 발송한 후 가족 수련자가 무사히 돌아왔다. 편지 내용이 너무 길지 않아야 사람들이 읽기 좋으며, 여러 번 나누어 쓸 수도 있다.

모든 박해 가담자와 관련 지도자들에게 진상 편지와 함께 법률 문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보 경찰들이 그러하다. 국보는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전담하는 부서이기에 국보가 박해하지

않으면 사건은 더 진행되지 않고 수련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수련자가 처분보류나 거주지 감시를 받게 됐다면 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형사 강제 조치임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집에 돌아온 후에도 박해를 반대하는 것을 중시해 형사 사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찰원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억울한 판결 단계까지 가게 된다.

만약 공안 단계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공안은 검찰원에 구속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건을 반려한다. 검사가 의견을 내는 기간은 7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단 5일뿐이며 이 5일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원은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 부서다. 변호사는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무죄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검사는 반드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변호사는 분명히 검사를 만날 수 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검찰원에 가서 기다려서라도 반드시 만나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수련자 가족들도 이 시간을 이용해 서둘러 진상 편지를 부쳐야 한다. 진상 편지는 담당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검사들이나 검찰장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다. 구속 승인은 검찰장이나 담당 부검찰장이 서명하고, 기소 여부는 소속 검사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거나 검찰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검사 연석회의는 담당 검사, 부서 책임자, 부서 책임자의 상급(예를 들어 부검찰장이나 검찰장 등) 등 최소 3인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사건이 검찰원에 넘어가면 진상을 알려야 할 대상이 담당 검사 한 명만이 아니니 가능한 널리 진상을 알려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

만약 검사가 파룬궁수련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면 덜 판결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수련의 각도에서 말해도 죄가 없는데 인정해서는 안 된다. 유죄 인정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처벌과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수련자에게는 사부님께서 보살피고 계시는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을 인정한다면 사부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신이 어떻게 돕겠는가? 본인이 원하고 인정한 것인데 호법신이 어떻게 돕겠는가! 물론 어떤 수련자는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고 후 석방됐는데 사실 원래 죄가 없었고 죄를 인정한 것은 수련을 포기한 것과 같아서 사악이 당연히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원을 통과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과 대략적인 형기 의견을 내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반드시 판사와 직접 면담해 진상을 알릴 기회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는 대개 법률적 관점에서 무죄 변론을 하고,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진상은 가족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격이 박탈된 정의로운 변호사는 이런 걱정 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어차피 자격증도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해두어야 하고, 법정에서 임기응변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 결과에 불복한다면 당사자 명의로 항소해야 한다. 2심은 반드시 공개 재판을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

2심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원심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1심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2심 단계도 여전히 진상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왜 그럴까? 공안·검찰·법원은 사실 한패다. 2심 판결이 뒤집힌다는 것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2심 관계자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 외에도 1심 관계자들에게 계속 진상을 알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박해 사건을 막후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인 시 정법위다. 그들에게 불법(佛法)을 비방하고 부처의 제자를 박해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진상을 명백히 알려 양심을 회복하고 무지 속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 법률 규정상 2심 개정에 1심 공안·검찰·법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1심 형기는 원래 정법위 내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된 것이며, 2심과 1심 관계자들은 업무상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중생들이 정말로 깨달아야만 그들의 생명과 미래에 유익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판사가 진상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상황은 달라질 것이며 사건 처리 종신책임제도 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태도를 강조할 수도 있다. “당신들이 저를 판결한다면 당신들의 가족과 자녀가 미국에 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인권 박해 중죄에 해당합니다.” 중공 악당이 문을 닫고 저지르는 박해는 역사의 치욕 기둥에 못 박힐 일임을 관련 인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한 수련자가 이 말을 하자 판사와 다른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며 판결이 자신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형량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상은 내가 아는 몇 가지 상황이다. 내 주변 수련자 중에는 아직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박해를 반대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관련 지식을 이해하시라고 글을 썼다. 물론 중공 악당이 저지르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 위법이며 그들의 사건 처리 방식은 법 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내가 실천 과정에서 알게 된 상황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이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에 더 잘 협조하시길 바란다. 특히 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은 이미 죄가 매우 크다.

개인적인 체득이고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자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선량함을 지키다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여러 차례 반복해 통독하면서 사부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세인에게 전하고자 하신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직 선량함을 지켜야만 생명이 승화할 수 있고 오직 선량함을 지켜야만 신의 구원을 받아 천계로 돌아갈 수 있으며, 오직 선량함을 지켜야만 덕을 쌓아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과 업무 속에서 저는 ‘진선인(眞·善·忍)’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며, 선태후아(先他後我), 무사무아(無私無我)의 수련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현실 생활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고 극단적으로 열악한 자연환경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선량함을 유지하는 일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갈등 속에서 거친 말이 마음을 강하게 흔들 때나, 자신의 막대한 이익이 손실을 입을 때에도 여전히 선량함을 지켜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수련생 여러분 모두가 깊이 체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진정으로 수련하고 착실하게 수련하는 대법제자들만이 사부님의 홍대한 대법 법리의 인도 아래에서, 그리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길을 순조롭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 1. 감정적 배신을 겪고도 여전히 선량함을 지키다

A 수련생은 올해 78세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얼굴에는 아이 같은 기색이 남아 있고 정신 또한 매우 또렷하십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또 다른 노년 수련생 한 분과 짝을 이뤄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진상을 알리고 계시며 날씨가 어떠한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상을 알린 경험에 관한 글도 명혜망에 여러 편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정리해 드리면서 비로소 그분이 과거에 겪어오신 어려움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A의 남편은 외도했습니다. 매우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던 A에게 이는 하늘이 무너지고 집안을 떠받치던 대들보가 부러진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질병까지 겹쳐 앓게 됐는데 특히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인한 류머티즘성 심장병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요추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 다리가 극심하게 아파 겨우 6~7cm 높이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

녀를 배려해 주며 “월말에 장부 몇 권만 정산하면 되니 평소에는 집에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두 아이는 아직 어렸고 큰아이는 중학생이었으며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온종일 눈물로 지냈고 ‘홍루몽’ 속의 임대옥처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살아갈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 몇 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아이를 모두 재워 놓고 유서를 써두니 이미 새벽 2시였습니다. 그녀는 밧줄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막길가에 다다랐을 때 눈물을 흘리며 걷는 그녀를 본 두 명의 선한 행인이 다가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며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조금만 더 희생하고 참고 견뎌 달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들의 간절한 권유로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98년 그녀가 대법을 얻은 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몸이 대법 속에서 정화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열흘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연공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가득하던 각종 질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사라졌고 몸 어느 한 곳도 아프거나 가렵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몸에 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됐으며 잃어버렸던 웃음도 저절로 얼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웃었고 이 모든 기쁨이 대법이 가져다준 것임을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몇 해 동안 그녀는 대법의 법리 인도 아래에서 심성을 닦아야 하고 법 속에서 수련해야 하며 착실하게 수련해야만 심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마음속의 원망과 증오를 이루는 물질을 제거할 수 없고 이러한 나쁜 물질을 수련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심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영원히 속인 중의 속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 외에는 매일 법공부와 연공에 전념했습니다. ‘전법륜(轉法輪)’ 이 한 부의 법을 근본으로 삼아 공부하며 3일에 한 번 읽고 4일에 한 번 읽기를 반복했고 사부님께서 각지에서 하신 설법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성은 점차 제고됐고 정에 대한 집착도 서서히 떨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A는 큰 장터 길가에서 진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남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고 그렇다고 그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섞게 되면 무척 어색할 것 같았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마치 수많은 말이 질주하듯 순식간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념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대법제자다. 나의 책임은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을 이루는 것이다. 진상을 알리는 중에 그를 만났다는 것은 그 역시 구원받고 싶어 하고 진상을 듣고자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뒤 그녀는 곧바로 전남편의 인사에 응했고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남편은 집행 부서에서 근무해 중공 악당의 세뇌를 깊이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이야기가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에 이르자 그는 사양하고 망설였는데 솔직히 말해 탈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의문점을 차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끝까지 들었고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는 기쁜 표정으로 스스로 가명을 지어 ‘삼퇴’를 선택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A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수련하기만 하면 대법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관념까지 철저히 변화시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좁고 답답하던 마음을 넓고 환하게 열어 주며 포용력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대법에 동화돼 ‘진선인’에 따라 행동하면 심신의 경지가 변화하고 승화되며 기적 또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문장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대법을 수련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 2. 아들이 수백만 위안의 재산을 독차지했어도 여전히 선량함을 지키다

B 수련생은 1997년에 대법을 얻은 노대법제자입니다. 올해 이미 80대가 넘었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가득하고 정신 또한 매우 왕성하십니다. 매일 자전거 삼륜차를 타고 여러 장터를 오가며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노년 수련생과 교류하던 중에야 저는 이 노년 수련생 또한 과거에 이익과 관련된 매우 큰 시련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 수련생은 젊은 시절 배우자와 함께 제본 공장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의 저축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그 저축으로 마을에 또 하나의 큰 공장 건물을 지어 공장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노년 수련생은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고 노년 수련생은 공

장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자녀, 즉 노년 수련생의 손자를 위해 현(縣) 소재지에 결혼용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공장 건물을 팔았고 수백만 위안에 이르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백만 위안의 매각 대금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는 노년 수련생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년 수련생은 마음속으로 ‘아이들이 몇만 위안만이라도 용돈으로 주었더라면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 텐데. 이것은 결국 나와 배우자가 평생에 한 푼 한 푼 모아온 피땀 어린 돈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판 돈에 대해 그녀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년 수련생은 사부님의 설법을 떠올리며 자신은 수련인이고 수련인은 이익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일깨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녀들에게 집을 판 돈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노년 수련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노년 수련생의 모습을 통해 대법의 신기함과 초범성을 직접 보았고 대법제자가 보통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수련을 매우 지지했으며 악이 대법을 가장 광적으로 박해하던 시기에도 아들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어머니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던 세뇌반의 대문을 들이받아 강제로 문을 열게 했고 악에게 어머니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열흘 남짓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악을 크게 위협했고 이후 악인들은 다시는 그녀의 집에 찾



아와 교란하거나 박해하지 못했습니다. 민감한 날이 되면 그저 경찰차를 몰고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며 대문 사진 한 장을 찍는 것으로 형식적인 대응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노년 수련생의 가정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친척이 대략 100여 명에 이르는 데, 모두가 진상을 명확히 알게 됐고 삼퇴를 선택했습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온 가족은 대법의 불은(佛恩) 속에 잠겨 사존의 보호를 받으며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3. 옥중에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량함을 지키다

그 일은 2016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련생과 함께 장터에 나가 진상을 알리고 명혜 탁상달력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령자는 진상을 들은 뒤에도 ‘삼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공 악당이 얼마나 좋으냐며 계속 두둔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쟁투심이 올라와 몇 마디 말로 맞서게 됐고 결국 그에게 밀고를 당해 구치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 경찰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능한 한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대법제자의 풍모를 보여주려 했고 끊임없이 경찰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여경이 있었는데 집에 마침 젖을 먹여야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우리를 지키느라 밤늦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해 아이가 모유를 먹지 못하고 있어 무척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서둘러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귀가하셔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못하게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제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제 선의를 느낀 듯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한눈에 봐도 다들 선량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악의가 없음을 느꼈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옷을 검사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성함은 ○○ 맞지요? 보아하니 당신도 좋은 사람이고 선량한 분이네요. 선량한 사람은 신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중국공산당의 당·단·대 조직 탈퇴, 즉 삼퇴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탈퇴하시면 평안을 지키실 수 있어요.” 제가 그녀를 위해 가명을 지어 주자 그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하나의 생명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법을 외우고 발정념을 하는 것 외에는 그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최대한 선의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처음 들어올 때는 감정이 불안정했기에 저는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차분하게 위로하며 음식을 나누고 입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크게 감동했고 제게 마음속 이야기를 기꺼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 따라 대법의 아름다움과 중공의 사악함을 전했고 그들이 오늘 겪는 고통은 악당이 부패를 일삼고 인간의 도덕을 타락시켜 사회 풍조를 급속히 추락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며, 사실상 그들 역시 중공의 피해자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뒤 그들은 모두 기쁘게 ‘삼퇴’를 선택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여성은 저녁 식사 때 밥을 먹지 않고 침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큰 소리로 외웠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토마토 달걀 볶음을 먹고 싶어요!” 그렇게 정념을 외우고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그녀에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법의 신기함을 직접

보고 나서 매일 공경하는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날 밤에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도 모두가 흥분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 주위에 둘러앉아 제가 들려주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의 진상을 들었으며 가부좌를 틀고 앉는 방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녀들이 모두 대법 진상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을 때 저 역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사존의 가지와 밖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구치소를 향해 발정념을 보내준 수련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생들이 구치소를 향해 발정념을 보낼 때마다 저는 강력한 정념의 장이 형성돼 다른 공간의 악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대법제자들이 발정념을 할 때 발휘되는 위력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법제자가 옥중에 갇힌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시종일관 선량함을 지키며 대법제자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생이 바로 이러한 대법제자들의 선량함을 보고 진상을 명확히 알게 돼 자발적으로 ‘삼퇴’를 선택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굳건한 대법 수련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천수만 대법제자들은 격렬한 갈등 속에서도, 감정적 배신 속에서도, 거액의 이익을 잃는 상황에서도, 끝없는 고독 속에서도, 세인들이 진상을 알지 못해 던지는 조롱 속에서도,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받는 욕설 속에서도,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열악한 자연환경의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육체가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담담하고 평온하게 마주하며 마음

속의 선량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대법제자가 끊임없이 ‘진선인’이라는 대법의 법리로 자신을 씻어내고 자신을 가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삶의 의미가 곧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의 사명이 곧 자신을 잘 수련하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을 이루며 중생을 구하는 데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인간의 껍질을 끊임없이 깨뜨려 제자들이 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존의 크나큰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사존께 삼가 큰절을 올립니다!

허스(合十)

## 오만한 자는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모든 전통 신앙에서 오만은 신께서 증오하는 것이다. 가톨릭의 7대 죄악 중 오만은 으뜸이며, 불가의 『화엄경』에서 말하는 삼중장(三重障)에서도 오만이 첫 번째다. 인간의 수많은 죄악은 모두 오만에서 시작되며, 이후 시기, 악독, 나태, 탐욕, 음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정교(正敎)는 오만의 죄악이 비길 데 없이 커서 천신(天神)조차 이에 해를 입는다고 여긴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 앞에 있던 여섯 날개의 천사로, 계명성(루시퍼) 곧 아침의 아들이라 불리며 큰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다. 그러나 사탄이 타락한 원인은 겸

허함을 잃고 망령되이 자신을 높였으며, 이어 여호와를 배반하여 천사에서 마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오만은 인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데바닷타는 석가모니불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본성이 오만했는데 출가 초기에는 진지하게 수행했으나, 나중에 갈수록 매우 오만해져 세존(석가모니불)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다. 그는 거리에서 미친 코끼리를 풀어놓거나 산 위에서 큰 바위를 밀어 내려 세존을 해치려 꾀했다. 데바닷타는 출가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교만함은 사라지지 않고 흉악하고 잔혹함만 날로 커졌으며, 결국 층층의 검은 업력을 지어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졌다.

오만이 법공부 중에 나타나면 어떤 이는 몇 년 공부하고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느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자부한다. 이때부터 경서를 내려놓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둥 헛소리를 하며 심지어 함부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원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표면의 글자만 볼 뿐 층층의 무진한 내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만이 진상 알리기 중에 나타나면 어떤 이는 몇 가지 일을 한 후 공로를 내세우며 오만해져 도처에 자신의 이름을 날린다. 어떤 이는 남의 추켜세움을 즐기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리며,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 어떤 건의나 비판에 대해서도 궤변을 늘어놓으며 배척한다. 어떤 이는 병업 증상이 나타나면 자신이 수고가 많고 공이 높으니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광기 어린 모습으로 사부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다.

오만이 교류 중에 나타나면 어떤 이는 자신을 뽐내며 과시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며 원망한다. 어떤 이는 거만한 태도로 남을 무시하며, 어떤 이는 공을 가로채고 잘못을 떠넘기며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다. 점차 이런 사람 중 일부는 첩자가 되거나 병으로 사망하고, 일부는 반복적으로 박해를 받으며, 일부는 줄곧 착실하게 실질적인 일을 하는 대법제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번거로움을 더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현우경』에는 한 어린 사미(沙彌)가 노년 비구의 독경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다고 비웃었다가 즉시 맹렬히 참회했음에도 여전히 500생 동안 개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노년 비구는 이미 나한을 성취했기 때문이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남을 가볍게 보며 조롱하는 결과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인의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우물 안 개구리 현상)’에서도 능력이 낮을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쉽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며, 지식과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욱 겸손해진다고 본다.

자신이나 타인의 언행이 교만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낮은 지능과 낮은 능력의 표현임을 생각해야 하며 제때 자신을 바로잡고 타인을 일깨워줘야 한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적고 어설프게 알수록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미미한 힘일 뿐임에도 하늘의 공을 탐하며, 마음이 좁을수록 자화자찬하고 어진 이를 시기하며 타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집안의 추태’를 드러내고 무고한 사람까지 해치는 것이다.

불가(佛家)의 관점에서 나한은 무아(無我)이며 즉 자아의 오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대법제자는 수련 중에서 더더욱 반드시 스스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닦아 없애야 한다. 우

리는 마음을 비우고 겸허해야만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만약 불법(佛法)이 광활한 대해라면 우리가 배운 것은 창해일속(滄海一粟)도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중생이 하늘의 별과 같다면 우리가 구한 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만약 각자(覺者)가 향하의 모래와 같이 많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든 얼마나 했든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신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혜를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천하의 왕들이 다 솔로몬 왕을 알현하여 신께서 솔로몬 왕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 했다.

솔로몬 왕이 세상에 남긴 말이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니라.”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수련하려면 명확히 알아야 한다. 교만은 변이되고 타락하는 시작이며 멸망으로 향하는 시초다.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생기거나 공로를 내세우고 남의 선생 노릇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오만을 경계하고 마성(魔性)을 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팽창하고 마성이 범람해 곧 위험이 닥친다.



## 이기심과 자아를 제거하다

글/ 후난성 대법제자 화자(華子)

[명혜망] 며칠 전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저의 집착심을 찾고 있었는데, 작은 종이 한 장에 글자가 뿔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자비(自卑·열등감), 자오(自傲·오만함), 자강(自強·강함)’이라는 여섯 글자만 유독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사람은 “이것이 바로 너의 근본적인 집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저는 이 꿈이 저의 근본 집착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려준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1950년대 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모두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특별한 재주도 없고 외모도 평범하며 일 처리 능력도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소처럼 고집스러워서 그저 고개 숙여 일만 할 줄 알았습니다. 남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저는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받은 전통 교육과 신성(神性)의 계발로 인해, 자신이 선량하고 정직하며 총명하고 유능해 남보다 못하지 않다고 여겨 오만하기도 했습니다. 전통과 정통에서 벗어나 도덕이 타락한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이들을 깔보기도 했습니다. 또 중공(중국공산당)의 ‘9대 유전자’와 세뇌된 인생철학이 주입한 쟁투심, 출세욕, 강자가 돼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매우 강해지려 했습니다. 비록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제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1996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얻게 된 후, 천년만년 지나도 얻기 힘든 고덕(高德) 대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인간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라는 인생의 세 가지 궁극적인 명제를 깨달았습니다. 심신이 정화되고 승화돼 일편단심 사부님을 따라 수련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집착심이 너무 많아 괴로웠습니다. 인간 세상의 오염된 진흙 속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기에 변이된 관념과 집념, 망념이 매우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9년의 수련 길을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아래에 열등감, 오만함, 강함, 그리고 이기심과 자아라는 집착을 제거한 두 가지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1. 직장 직원대회

1996년, 제가 막 법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직장에서 인원 감축과 관련한 직원대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도중 한 간부가 갑자기 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를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저를 가리키며)를 보세요. 별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주택, 난방, 에어컨, 24시간 온수까지 말이죠.”(사실 저는 비싼 값을 주고 기관의 복지주택을 산 것 외에는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런 혜택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그녀의 여동생은 능력도 외모도 뒤지지 않는데 실직해서 작은 가게를 차려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가요? 단지 운이 좋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동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왜 나를 그런 예로 드는 거지? 내가 약하고 만만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성실하고 무능해 보여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큰 능력은 없어도 맡은 일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의 아내처럼 아무 일도 못 하며 빈둥거리는 것도 아닌데… 이 일을 따져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대법제자다. 시험이 온 거다. 고비가 온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시드니법회 설법)고 가르치셨다. 참아야 한다.’ 두 가지 생각이 줄다리기하다가 결국 이성이 부정적인 사유를 이겨냈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꼭 참았습니다.

퇴근하는 버스에서 동료들이 농담조로 “오늘 다 같이 아무개네 집에 가서 난방이랑 에어컨, 24시간 온수 좀 누려보자, 하하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억울한 마음에 그저 소리 내 울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여동생 내외가 와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그들은 사정을 알고 나서, 자기들이 그 간부를 찾아가 한바탕 망신을 주고 저 대신 분풀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계속 편치 않았고 그 후 그 간부를 보면 전처럼 인사하기가 무척 거북했습니다.

나중에 ‘정진요지’의 ‘무엇이 참음인가(何爲忍)’를 외우다가 이 단락을 만났습니다. “참음(忍)은 心性(심성)을 제고하는 관건이다. 화가 나 원망하고, 억울해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참는 것은 속인이 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참음이다. 화를 내거나 원망함이 전혀 생기지 않으며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수련자의 참음이다.”

법을 읽는 순간 수련자의 참음과 속인의 참음의 차이를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법 수련자이므로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도 억울함도 느끼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부님의 법이 단번에 제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수련의 길에는 우연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제게 이런 집착이 있었기에 그것을 제거해 줄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과 일이 나타났고, 이런 난(難)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성을 제고하고 업력을 없애도록 도와준 그 간부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 그를 만났을 때는 담담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 2. 중학교 동창회

2019년 11월, 중학교 동창회에 약 5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70세 전후였는데 그들에게 진상을 알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진상 USB를 준비해 몇몇 동창에게 차례로 주며 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동창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고, 어떤 동창은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식사 중에 한 남자 동창이 집안일이 있어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며 진상 USB를 건네며 집에 가서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USB를 보자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혹시 파룬궁 관련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진상을 좀 알아봐.” 그러자 그가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반당(反黨)적인 걸 나한테 선전해? 이번 동창회에 원래 너에게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알아? 몇 명이 의논해서 한 동창이 널 보증하겠다고 해서 겨우 오게 한 거야.”

순간 시끌벅적하던 식사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5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와 가장 친한 다른 남자 동창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이걸 하고 있구나…” 제가 해명했습니다. “파룬궁은 좋은 거야.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그러자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네. 네 인생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알아? 아직도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이루고…” (그 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를 보증해줬다는 그 남자 동창도 나서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보증해서 너를 오게 해줬는데, 네가 여기서…”

순간 머리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욕감, 억울함, 체면과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나며, 누군가 제 뺨을 세게 때린 듯 얼굴이 화끈거리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상황과 말들은 제가 그동안 감싸고 있던 열등감, 오만함, 자아라는 가짜 나를 깊이 찔렀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힌 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진상을 모르는 속인의 몇 마디 말에 이렇게 무너져 눈물을 흘리다니… 신이라면 울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인데, 어찌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이는 자아를 너무 중하게 보고 중생을 가볍게 본 탓이며, 새 우주의 ‘선타후아(先他後我), 무사무아(無私無我)’ 특성에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 동창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고, 이어 두세 명의 남자 동창도 말없이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점점 10여 명의 동창이 제 주변에 모였고, 예전에 현장(縣長)을 지낸 남자 동창도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민망해할까 봐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때 부현장을 지냈던 남자 동창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그러면서 그가 겪은 신기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대법 진상을 들은 적도 있고, 제게 여러 차례 진상을 들었으며 제가 준 진상 USB도 받았었습니다. 또 자기 직장에서 대법제자들을 보호해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건 개인의 신앙 문제야. 나는 그들(직장의 대법제자들)을 ‘학습반’(세뇌반)에 보내지 않았어. 그들은 단지 건강한 몸을 원할 뿐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저를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로하려 했으며, 다른 동창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때 저는 진상을 아는 중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지 동창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외지에서 온 동창들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명백한 일면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주해야 하고, 훗날 동창들이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좋은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같은 방을 쓰는 여자 동창과 함께 여러 방을 돌며 인생, 자녀, 가정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동창들의 전화번호를 전화 진상을 하는 두 수련생에게 주며 저 대신 ‘삼퇴’를 권해주고 대법의 자비로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중 한 수련생이 알려주기를, 거의 절반이 넘는 동창들이 진상을 알게 됐고 10여 명이 삼퇴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군구(軍區) 출신의 한 동창은 진상을 매우 잘 알고 있었는데 삼퇴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건 수련생에게 나중에 베

이징에 오면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삼퇴하지 않은 동창도 있습니다. 그중 광저우 군구 출신의 그 동창(당시 저를 모욕했던 동창)은 수련생의 전화를 받고 제가 한 전화인 줄 알고는 끊지 않아, 결국 그 수련생과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동창회 날 저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로 협력해 준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동창회는 저의 열등감, 오만함, 강함이라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비록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었지만, 저의 근본 집착인 자아와 이기심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기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체면을 잃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오만하게 만들고, 강한 척하게 만든 모든 것은 ‘나(我)’라는 글자가 앞머리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세력이 안배하고 사악이 조종한 것이며, 후천적 관념으로서 중생을 해치고 대법제자의 의지를 소모시키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체하며, 수련해 제거하겠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을 건드리는 모든 일은 저를 단련하고, 제고하며, 순정하게 만드는 기회이니,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경지를 승화시켜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神)으로 나아가 사부님을 따라 하늘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자아와 이기심의 집착을 제거한 두 가지 작은 이야기입니다. 층차가 한정되어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파출소장 “서명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현지 공안분국에 납치된 후, 중공(중국공산당)의 민감한 날이 올 때마다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이 남편을 찾아와 압력을 가했습니다. 2025년 이 공안분국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생 여러 명을 박해한 응보로 기구 간소화 명목으로 해산됐습니다. 이 국보 대장은 일반 지역사회 경찰이 됐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은 전(前) 공안분국 국장이며 저를 만나 ‘해탈’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구원받으러 온 중생임을 깨닫고 먼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만나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지만 사진 촬영은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파출소장은 경찰 한 명과 주민센터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을 맞이 하듯 그들을 맞아들여 차를 대접했는데, 경찰이 몰래 제 사진을 찍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매우 엄숙하게 이것은 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은 제 뒷모습만 찍었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당신들이 사진 찍지 못하게 하는 건 당신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장은 경찰에게 사진을 삭제하게 했고, 자신은 저와 통화한 휴대폰 기록이 있으니 저와 연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은 관료적인 말투로 제게, 자신은 상부의 정책을 선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면 ‘해탈’할 수 있고, 앞으로 자녀와 가족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당신들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천안문에 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안문 분신 사건은 조작된 것이며 파룬궁을 모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미국인들이 한 말이라고 했고, 저는 유엔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은 살생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들 파룬궁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했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해서 분신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신앙에는 자신의 계율이 있고 계율을 준수해야만 그 문파의 제자이지, 누가 스스로 어느 문파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문파의 신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웨칭(釋學誠, 전 중국 불교협회 회장, 여승들에 대한 성추행과 거액의 비리 의혹으로 회장직에서 사퇴함)도 계율을 어겨서 파문당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든 생선 요리를 먹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사 온 생선은 다 죽은 물고기라면서요.” 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장은 또 제가 왜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매우 솔직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신이 가장 괴로울 때 파룬궁을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 결혼생활은 파탄 직전이었고, 저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추구하던 것들은 모두 오래 지속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굳은 사랑의 맹세도 변할 수 있고, 아이는 자라면 더 이상 부모의 계획대로 성장하지 않으며, 건강은 통제할 수 없고 질병은 갑자기 찾아오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 없습니

다. 저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제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파룬궁은 제게 답을 찾게 해주었고, 저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떠날 때 그는 제게 다음번에는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생명의 명백한 일면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배웅한 후, 아마도 사부님께서 제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제 뇌리에 ‘삼성가노(三姓家奴)’라는 단어를 넣어주셨습니다. 신전문화(神傳文化)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삼국연의》에서 장비가 욕할 때 한 말임을 알게 됐고,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여 여포가 장비에게 삼성가노로 질책 받은 역사적 고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신분증을 찾으러 파출소에 갔고 미리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은 우리 지역에서 파룬궁을 수련했던 수십 명이 모두 ‘해탈’했다고 말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은의(恩義)를 매우 중시합니다. ‘큰 은혜는 말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연의》에서 관우의 하늘을 찌를 듯한 충성심과 그의 인격적 매력은 후세 사람들에게 계속 추앙받고 있습니다. 여포는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의부 정건양을 죽이고 동탁에게 투항하여 동탁을 의부로 삼았다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다시 동탁을 죽였습니다. 이런 불충불의한 행동을 장비는 “성(姓)이 세 개인 노비놈”, 즉

‘삼성가노’라고 질책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매우 선량한 교사셨는데, 외할머니 학교의 교무주임이 결혼할 때 그녀를 돕기 위해 외할머니는 자신의 집까지 비워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외할머니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반(反)혁명으로 몰렸고 외할머니가 그와 이혼하기를 거부하여 반혁명 가족이 되자, 그 교무주임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외할머니에게 수업을 중단시키고 전교 교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벽돌을 나르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은인을 배반할 수 있는 ‘담장 위의 풀’(牆頭草, 역주: 바람 부는 대로 눕는 풀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신념과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해탈’시킨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접촉했으니 분명 그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누가 파룬궁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반드시 좋은 점을 얻었기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 도덕을 승화시켜 주셨으니 저의 은사이십니다. 파룬궁은 제게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온몸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저의 큰 은인입니다. 그런데 사부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파룬따파가 재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배반하고 자신의 은인과 결별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삼성가노’이고 ‘담장 위의 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널리 알려 모두가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단지 제 은사님께서 누명을 쓰셨을 때 공정한 말

한마디를 고집하는 것뿐인데,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 아닙니까?”

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파출소에 일을 보러 갔는데 사부님께서 절묘하게 제가 대기실에서 소장을 만나도록 안배해주셨습니다. 그는 특별히 제 남편을 불러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몇 명은 서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당신들을 ‘해탈’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더욱 사존의 도움과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두려움과 원망심을 버리게 하시고, 지혜와 자비로 진상을 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박해에 참여하는 경찰들의 명백한 일면이 진상을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절박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련생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박해받는 위치에 놓지 마십시오. 우리와 그들은 구원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들 겉모습의 악랄한 태도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임무수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경찰들은 아득히 먼 옛날 천상에서 어쩌면 우리와 함께 세상에 내려온 왕이나 주(主)였을 수도 있고, 생생세세 윤회 속에서 어쩌면 우리와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우리의 가족들을 구하십시오!

## ‘모기가 나를 물지 않는다’에서 깨달은 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어느 날 저녁 연공하기 전, 저는 모기에게 물려 연공에 지장이 생길까 봐 모기를 쫓는 액체 병뚜껑을 열고 손발에 바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모기가 나를 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멈칫하면서 즉시 손을 거두고 바르지 않은 채 연공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섯 가지 공법을 다 마칠 때까지 모기가 저를 문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모기가 나를 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일념은 당연히 정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기가 나를 물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상태가 좋을 때는 ‘물 테면 물어라, 어쨌든 빨아가는 건 좋지 않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참아 넘길 수 있었고 괴로움도 느끼지 않았습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 느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몸을 긁으면 부풀어 오르고 긁을수록 가려워 마음이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모기가 나를 물 것이다’를 ‘모기가 나를 물지 않을 것이다’로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수련 과정에서 이와 유사하게 바뀌어야 할 사상이 아주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전화가 오거나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공안이 또 교란하러 온 것 아닌가’ 혹은 ‘또 나를 박해하러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바르지 못한 생각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진상을 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진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누가 미행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사

복 경찰이 아닐까’ 등등의 부정적인 사유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나쁜 사상들은 제 수련과 사람 구하는 일을 심각하게 교란했습니다. 정말 명혜망에서 수련생들이 교류한 것처럼 ‘박해받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적 사유의 근원이 ‘두려워하는 마음(怕心)’, 즉 ‘박해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저는 관념을 바꾸고 박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대법제자이고 사부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며, 나는 사람을 구하려는 바른 일을 하고 있으니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대법 사부님께서 관할하시며 구세력이 나를 관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관장하는 자는 누구든 죄가 있으며 법이 그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수년 전 저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제가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배포하러 나갔을 때, 거리에서 50~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마주 오기에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책 한 권 보세요”. 그 사람이 책을 받아 보더니 즉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에 반대하다니, 신고하겠다!”라며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두렵지 않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량한 생명이라 저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말을 다시 반복했지만, 저는 여전히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량한 생명이라 저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원래 그가 큰 소리로 떠들었고 거리에는 오가는 행인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멈춰서 우리 둘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과 그 행인들은 마치 서로 다른 공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도 못했고 우



리가 말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떠들지 않았고 휴대폰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9평’을 보기 싫어하는 줄 알고 책을 다시 거두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책을 아주 짹 쥐고 있어서 제가 힘을 써도 책이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포기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책을 가지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다음에 또 신고하겠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한 가지 일입니다. 역시 진상 자료를 배포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상이 바르지 않았고 출발점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자료를 집에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니 빨리 배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세력에게 사상의 빈틈을 보였고 나쁜 사람의 신고를 당했습니다. 박해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좌우되어 정념이 없었고, 결국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一念)에서 나오며, 이 일념의 차이가 부동(不同)한 후과(後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전법륜)

앞의 일은 자신이 정념이었고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라 저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부님께서 제가 이 난을 해소하도록 도와주셨고, 그 사람이 대법에 죄를 짓게 하지 않아 그는 구원받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뒤의 일은 자신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박해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리

어 이 일과 관련된 많은 세상 사람이 대법에 죄를 짓게 했고, 자신도 당하지 않아도 될 난을 겪어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제 부정적인 사유가 대부분 두려운 마음, 즉 갖가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의 뒤에는 위사위아(爲私爲我, 사사로움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의 마음이 숨어 있으며, 자아를 보호하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두려운 마음들을 없애기로 결심해야 하며, 위사위아하는 구생명(舊生命)의 관념을 철저히 바꾸어 대법 속에서 새 우주의 생명으로 갱신되어야겠습니다!

##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견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현대인은 실리주의와 도덕 상대주의를 매우 강조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말을 바꾸면서도, ‘말이 통하고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융통성’, ‘현실성’, ‘변통성’을 장점이자 강자의 능력으로 여기기도 한다. 도덕 상대주의는 사실상 도덕적 기준이 없이 목적만을 중시하는 것이다.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인류의 기본적인 보편 가치이다. 도가의 진(眞) 수련, 유가의 성실함, 불가의 거짓말 금지, 기독교의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르침 모두 정직과 신용을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필수 덕목으로 간주한다.

유가에서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라고 했고, 불가에서는 ‘거짓말은 모든 선의 근본을 잃게 한다’라고 했다. 즉, 진실함과 신용을 잃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나 근원 없는 물과 같다.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가지와 잎이 번성할 영양분을 얻을 곳이 없고, 샘에 근원이 없으면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조차 끊기게 된다. 파룬궁수련자가 진(眞)을 수련하지 않으면 법을 얻을 수 없고 정과(正果)를 이룰 수도 없다. 진을 수련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량함이 부족하고, 고생을 견디는 마음과 포용심, 동정심, 공감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수련하며, 진(眞)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참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고, 참된 사람이 됨으로써”(전법륜)라는 말은 단 몇 글자뿐이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통치하는 사회 아래의 중국에서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매체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상품은 가짜이고, 의료계조차 양심을 저버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중국인,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어려서부터 ‘고도로 도구화된 사고’를 배웠다. 언어(서면 문자 포함)는 진실한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원칙, 가치, 이유는 언제나 ‘나를 위해’ 갈아치울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다. 오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명분을 찾다가도, 내일은 그 일이 자신에게 필요 없거나 쓸모없어지면 전혀 반대되는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 이런 사고가 도구화되고 목적성이 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말을 하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

며, 도덕적 일관성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문화 속의 거짓말, 충효, 진실에 대한 가치 정의를 잃어버렸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수련자들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 거짓말은 이미 일상이 됐고, 많은 이가 세속에 휩쓸려 가끔 거짓말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사실 정상적인 사회에서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부끄러운 일이며, 거짓말은 파룬궁수련자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수련자는 진(眞)을 수련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아 수련 중에 끊임없이 누락이 생겼고, 이는 구세력이 박해할 구실을 주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어느 한 수련자는 가방에 진상 자료를 넣은 채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기차를 타려다 역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돼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수련자는 몇 달간 무단결근 후 출근했다가 회사의 강요에 못 이겨 가짜 서류를 제출해 직장을 유지했으나, 이후 사오(邪悟)에 빠졌다.

중국인은 ‘작은 선이라 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 수련자들은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수련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를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로 여겼을 수 있다. 하지만 수련에서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변이된 사상과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집착을 반영하며,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남을 모두 속이는 행위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정직한 사람이 진실한 것이며, 마음과 입이 하나가 돼 숨김없이 말하고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그러나 공산당 당문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중국인은 입

만 열면 거짓말을 하며, 가짜를 말하면서도 얼굴을 붉히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세속에 휩쓸린다면 그것은 진실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며, 바르게 걷는 것도 아니다.

어떤 수련자들은 항상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거둢 박해를 당하곤 하는데, 이런 수련자들은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한다. ‘나는 진(眞)을 수련했는가? 참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는 면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말이다. 내실 있게 수련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부 수련자가 왜 평온하게 걸을 수 있고 교란을 적게 받는가? 그것은 하는 일이 법에 부합하므로 사부님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한 결과 중 하나는 진정한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고통스러운 업보를 받는 것이다. 거짓말은 수련인에게 중대한 장애물이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명확해진다. 진(眞)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善)과 인(忍)을 논할 수 있겠는가? 어떤 불도(佛道)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며 일을 처리하겠는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하여 진인(眞人)이 될 수 있겠는가? 공을 가로채고 잘못을 떠넘기며, 속임수를 쓰고 과장하는 것을 모든 신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진을 수련해야 한다.

우리는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짓말과 가짜들이 모두 변이되고 바르지 못한 현대적 관념이며, 단호히 고쳐야 할 악습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행실을 곧고 바르게 해야만 진정으로 법을 얻을 수 있고 견실하게 향상할 수 있다.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 연금 지급 중단: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노인에게 가하는 비폭력이지만 치명적인 박해

글/ 필도(筆道)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계슈타포인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은 나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안정 유지사무실’이라 칭했다. 하지만 이 ‘중국 계슈타포’의 파룬궁에 대한 집단학살 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지난 27년 동안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악마 같은 정책이 노년 파룬궁수련자들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소멸 사슬: ‘불법적인 형사 박해 + 연금 영구 중단 = 경제적 원천 차단’

1) 먼저 명예를 실추시킨 후, 법적 근거 없이 단지 ‘윗선’의 구두 밀령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어떤 파룬궁수련자에 대해서도 체포·가택수색·구류·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국 특색’이다. 자유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기본적 인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고,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양로 수입을 정부가 제로로 만드는 처우를 공감하기가 더욱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사실이다. 1999년부터 2026년까지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27년간 지속됐으나,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고 감히 법률 문건을 발표하지도 못

하며 완전히 특정 개인의 구두 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공의 사악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다. 중공이 집권하는 한 ‘법치’, ‘공화’ 혹은 ‘인민을 위해 복무’를 자처하든 그 ‘거짓·사악·폭력(假惡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 2) 형사 기록에 따른 연금 중단

1999년 7월 20일 이전에 중국인 열 명 중 한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서적을 읽어 신체 건강과 도덕적 향상을 얻었으며, 총인원은 7천만에서 1억 명에 달해 당시 중공 당원 수를 초과했다. 26~27년이 지난 지금, 당시 30대였던 수련자는 현재 50~60대가 됐고, 당시 40~50대였던 수련자는 현재 60~70대가 됐으며, 당시 50~60대였던 수련자는 현재 80~90대가 됐다. 또한 온갖 병에 시달려 의사를 찾아도 방법이 없어 연공을 한번 해보려고 온 사람들이 당시 바로 50~60대의 중노년층이었다.

35세면 업계에서 도태될 수 있는 사회에서, 노인이 직장을 빼앗기고 감옥살이를 겪고 거액의 벌금을 당하고 퇴직 연령에 이르러 쓸쓸한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연금마저 끊겨 평생 고생하고도 결국 기본 생활비와 난방비조차 지불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사회는 단순히 체계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체계적으로 ‘경제적 폭력’을 이용해 이 선량한 노인들을 살해해 앞서 언급한 악마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육체적 소멸’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중국 내 파룬궁 관련 사망 및 연금 문제는 중공이 ‘고도로 민감’, ‘기밀’, ‘극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보가 봉쇄돼 있다. 많은 세부 사항은 해외 인권 보고서, 예를 들어 명혜망 및 명혜출판사가 발행한 ‘중공의 파룬궁 박해 20년’, ‘중공의 파룬궁 박해 25년’ 및 기타 각종 사례 보도와 통계 보고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 2. 경제적 박해로 인한 사망과 경제적 박해를 타파한 사례 개요 (각지 수련자들의 더 많은 사례와 더 구체적인 사례 제보를 환영)

유형 1: 노년 파룬궁수련자가 연금을 박탈당해 빈곤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례

사례 1: 동북 지역 퇴직 여성 노동자 ‘연금 중단 + 반복 구금’

1) 기본 상황: 70세 전후 그녀, 국유기업 퇴직 노동자. 합법적으로 퇴직했고 양로보험을 완납했다.

2) 박해 경과: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행정 구류와 강제노동(노동수용소 제도 폐지 전)을 당했다. 노년에 진상 자료를 붙였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3) 연금 문제: 불법 감금 기간 지방 인력사회보장부는 연금을 중단했고, 출옥 후 ‘형사 판결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회복을 거부했다. 서면 행정처벌 결정 없이 오직 ‘윗선’의 구두 통지만 있었다.

4) 결과: 당사자는 고정 수입이 없었고 자녀들은 연루될까 봐 공개적으로 부양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영양 부족에 시달렸고 의료도 보장받지 못했으며 출옥 후 약 2년 만에 빈곤과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요약: 이 사건의 핵심 특징은 노인이 ‘형사 박해 + 연금 영구 중단’을 당해 경제적으로 끊긴 후 빈곤과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사례 2: 화북 지역 사업단위 퇴직 교사가 ‘연금 추징’을 당하다

1) 기본 상황: 75세 전후 남성, 퇴직 중학교 교사

2) 박해 경과: 장쩌민(江澤氏)과 중공이 1999년 파룬궁을 공개 박해하기 시작한 이듬해, 국무원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문건

(2000년 공통자 39호 문건)을 발표해 14종의 사고 명단을 공포했는데 그 안에 파룬궁은 없었다.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위헌이자 위법임에도 26년간 각지 법 집행 부서는 여전히 ‘사고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를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 퇴직 교사도 이를 빌미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3) 연금 문제: 불법 감금 기간에 지급이 중단됐다. 출옥 후 인력사회보장부가 복역 전후 ‘초과 수령한’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누적 추정액이 수만 위안에 달했다.

4) 결과: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의지해야 했으나 ‘정치적 문제’(전향 거부, 파룬궁 배신 및 욕설 거부)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만년에 만성질환에 걸렸지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사망 전 친지들의 도움에 의지해 생활이 극도로 곤궁했다.

요약: 사례의 특징은 당사자가 평생 일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역으로 추정하여 당사자의 사회 보장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점이다.

**사례 3: 서남 지역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된 퇴직자—‘법률 문건 없이 오직 구두 밀령에 따라 지급 중단’**

1) 기본 상황: 68세 전후 그녀, 원래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됐고 나중에 도시 직장인 양로보험에 가입했다.

2) 박해 경과: 여러 차례 단기 구류됐고 노년에 형을 선고받았다.

3) 연금 문제: 당국이 먼저 불법적으로 형사 기록을 만든 후 지역에서 ‘복역 인원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중단했다. 당사자가 출옥한 후 지방 기관은 책임을 미루며 ‘상급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년간 어떠한 보충 지급도 없었다.

4) 결과: 당사자는 노동 능력이 없고 가족의 지원도 없어 오랫동안 빗에 의존해 생활했다. 빈곤과 정신적 트라우마 속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요약: 사례의 특징은 정부 인원이 중공의 구두 박해 정책에 따라 연금 보충 지급을 지연시켜 노인의 경제적 수입원을 끊고 노인이 빈곤과 질병 속에서 죽게 했다는 것이다.

**사례 4: 쓰촨성 퇴직 부교수가 10여 년간 연금을 박탈당한 끝에 사망**

쓰촨성 루저우(瀘州)시 시난 의과대학 퇴직 병리해부교연실 세포학 부교수 탕쉬전(唐旭珍)은 2025년 12월 18일 88세로 사망했다. 2011년 10월부터 탕쉬전의 연금과 의료보험이 시난 의과대학(원 루저우 의학원)에 의해 전부 박탈됐다. 이 세포학 부교수는 10여 년간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도 없이 전적으로 친지들의 도움에 의지하다가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탕쉬전은 의학원이 자신의 퇴직 연금을 중단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도 없고 정식 법률 절차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관련 서류를 들고 신·구 캠퍼스에 있는 해당 부서와 학교 지도부를 찾아가 도리를 따지고 연금을 요구했지만 학교 지도부는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도망가거나 얼버무리거나 보안요원에게 막으라고 지시하거나 심지어 파출소 경찰을 불러 야만적으로 납치하기까지 했다.

수년간 80여 세의 탕쉬전은 수차례 단위를 찾아가 압류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학교 경비처나 파출소 경찰에게 가로막혔으며, 사무실에서 교문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그녀는 루저우시 민원실, 쓰촨성 교육청, 시난 의과대학, 루저우시 정부, 쓰촨

성 정부, 국가 교육부, 청두시 중급법원, 고급법원을 방문하여 정보 공개를 신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그녀가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 바퀴를 도는 데 반년 넘게 걸렸으나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됐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감히 관여하려 하지 않았으며 법 집행 부서조차 관여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자들이 법률과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퇴직금을 되찾으려 했으나 중공 정부 법 집행기관 인원들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와 직책을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시난 의과대학 및 모든 관련 정부 부서가 탕쉬전 노인의 연금과 의료보험을 박탈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륜 도덕을 상실한 것이다.

### 3. 도덕과 법률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연금을 되찾아 빈곤사를 면한 사례

사례 5: ‘사회보험법을 돌파구로’ 자신의 정당한 연금을 되찾다

1) 상황: 중국 화동 지역의 한 퇴직 엔지니어, 70대 초반 남성, 기업 퇴직 기술자

2) 박해와 연금 문제: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았고 출옥 후 연금이 중단됐다.

3) 핵심 전환점: 법에 따른 권익 수호 과정에서 그와 가족은 기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각도로 접근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중국 ‘사회보험법’ 제16조를 인용했다. 연금은 보험료 납부 후의 법적 권리이며, 법률은 행정 부서에 영구 박탈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인력사회보장부에 정식으로 소송 가능한

행정 결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인력사회보장부는 합법적인 서면 문건을 제시하지 못했다).

절차적 측면에서 지적했다. a) 연금 중단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적이 없다. b)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c) 중단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없었다.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 가족들이 기층 사회보장 직원들에게 대면하여 진상을 알리고 선을 권했다. “노인이 연세가 많은데 수입이 없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사례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방 인력사회보장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하에 연금 지급을 회복했고 중단 기간의 미지급금 일부를 보충 지급했다. 노인은 절대 빈곤에 빠지는 것을 피했고 기본적인 의료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맺음말

연금 지급 중단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박해’를 구성하며 장쩌민과 그의 610의 악마 정책(경제를 파탄냄)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다. 노인에게 연금을 공제하고 수입원을 끊는 것은 비폭력적이지만 매우 치명적인 상해가 된다.

연금을 되찾은 소수의 성공 사례는 정부 인원들이 진상을 알고 양심을 회복한다는 전제하에 당사자가 절차적 위법과 재산권 측면에서 접근하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 수입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옛말에 “삼강의 물을 휘저을지언정 도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중국인이 이미 잊었을 것이다. 강물을 휘저으면 용왕을 노하게 할 수 있지만 수행자(수련자)의 마음을

어지럽힌 죄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수행자에게는 모두 사부나 신이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도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대법 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더 많은 대법제자가 도덕 인륜, 법률 및 법률 절차 등의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각급 정부 인원에게 진상을 명확히 알려 그들의 선념을 일깨우고 그들이 박해 참여를 중단하게 하며 대법제자에게 합당한 법적, 도의적 지지를 보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가오이천 사건 기소와 중국 ‘610사무실’의 제도적 유산

글/ 필도(筆道)

[명혜망] 전 중국 국가안전부 부부장이자 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부주임인 가오이천(高以忱)이 기소된 사건은 중국의 법외 당무 기구와 관련된 장기적인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록 당국은 이를 반부패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가오의 낙마는 파룬궁 박해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 610의 역할을 다시금 주목받게 했으며, 중국공산당(중공) 내부의 문책제 이행 능력, 법치 및 임시 법외 체계의 합법성에 대해 더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했다.

### 배경

가오이천의 배경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헤이룽장대학 러시아어과 1972학번으로, 오랫동안 광명일보의 소련 및 미국 주재 기사를 지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부부장(부총경감)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중앙 방범 및 사고 문제 처리 영도소

조 사무실(610사무실) 부주임, 중공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중앙 안정유지 업무 영도소조 사무실 부주임을 겸임했다. 이러한 ‘외근+ 정보+ 정법’의 복합적인 배경은 그가 국가안전부에서 담당 한 업무 분야에 매우 강력한 타격 지점을 갖게 했다.

가오이천은 2025년 6월 조사를 받았으며, 2026년 1월 정식으로 검찰 기소됐다.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그의 불법 소득은 몰수됐고 사건은 사법 절차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죄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05~2015년 기간에 가오이천은 ‘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통칭 610) 부주임을 맡았다. 이 사무실은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된 중공 주도의 조율 기구로, 전국적인 파룬궁 박해 정책을 감독하는 책임을 졌다. 운영 모델은公安, 검찰, 법원, 선전 부문 등 국가 기구와 평행하면서도 대개 이들 기구 위에 군림했다. 이 사무실은 2018년 공식적으로 명칭이 폐지됐으며, 그 기능은 중공 정법 시스템과公安부로 통합돼 ‘안정유지 사무실(維穩辦)’과 같은 명목으로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 ‘610사무실’의 제도적 특징

610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부 기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 법외 지위: 법률이 아닌 중공의 지시에 따라 설립됐으며, 이는 610을 공식적인 행정 및 사법 감독 밖에 있게 했다. 2. 계통을 넘나드는 권한: 경찰, 법원, 감옥 및 지역 당위원회를 조율하며,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법적 판결 결과에 자주 영향을 미친다. 3. 책임의 분산화: 의사결정 고리가 불투명해 사후에 권력 남용이나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은 610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 아니라, 중공이 인지하는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영도소조’와 특정 임무 기구를 이용하는 중공의 광범위한 통치 관행을 반영한다.

## 인권 침해 의혹과 국제적 관심

가오이천이 재임하는 동안 해외 인권 단체와 관련 모니터링 기구는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대량의 구금, 판결 및 구금 중 사망 사례를 보고했다. 이들 단체는 강제적인 의식 형태의 ‘전향’, 고문 및 치명적인 학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으며, 파룬궁과 관련된 구금이나 구금 중 사망에 관한 완전한 공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보도와 캠페인은 일부 사법권 내에서 610 관련자에 대해 실시된 제재와 법적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조사를 불러일으켰다.

## 반부패와 ‘법외 조직’ 문책의 대조

가오이천에 대한 기소는 저우융강(周永康), 리둥성(李東生), 펑보(彭波) 등 정법 및 보안 계통과 연관됐던 다수의 고위 관리들이 낙마한 뒤를 잇는 또 다른 사례다. 공식적인 설명은 정책적 책임이 아닌 부패와 기율 집행을 강조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진다. 개별 관리에 대한 처벌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초법적 운영 방식이 초래한 시스템적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가?

610은 명목상 해체됐지만, 그 핵심 운영 논리, 즉 불투명한 조



을 기구를 통한 중공의 집권 통제는 여전히 중국 정치 체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정책 영향** 1. 운영 방식상 위험: 법외 기구는 단기적으로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정치적, 법적 책임은 현저히 증가시킨다. 2. 문책의 결함: 명확한 법적 권한과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급적 문책은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우연성을 띠게 된다. 3. 법치의 국한성: 가오이천 사건은 중공의 권위가 제도적으로 사법 심사와 격리돼 있을 때 법률 개혁이 갖는 한계를 설명한다.

## 향후 전망

현재 가오이천에 대한 기소가 610을 탄생시킨 통치 체제 모델과 존재 의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로 이어질 조짐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은 중국 정치 체제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강조한다. 기구는 결국 폐지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구를 탄생시킨 구조적 동기는 명칭을 바꾼 채 계속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들에게 가오이천 사건은 제도적 수정의 증거라기보다는 법외 권력이 가져오는 지속적인 위험을 드러내는 상기 장치에 가깝다.

## 관련 정보

1. 당위원회 정법위원회(정법위): 정법위는 중국공산당이 사법,公安, 검찰, 법원, 국가안전 및 사법 행정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직능 부서다.

\* 직능 논리: 사법 기관이 아니라 당무 관리 기구다. ‘칼자루’가 당의 손에 있도록 보장한다.

\* 610과의 관계: 2018년 당과 국가 기구 개편 전에는 610이

대개 정법위에 소속됐거나 고도로 중첩돼 있었다. 2018년 이후 610의 기능은 정법위와公安부로 통합됐다.

\* 배경의 깊이: 정법위의 존재는 중국의 법원과 검찰원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중대하거나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건은 대개 정법위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2. 영도소조: 이는 중국이 공산당 극권 국가로서 갖는 특유의 기구다. 610 외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문화대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문화혁명소조’가 있다. 1966~1968년까지 ‘중앙문화혁명소조’의 권력은 장칭(江青)의 손에 있었으며 사실상 중앙정치국을 대체했다.

\* 설립 논리: 기존 정부 직능 부서(公安부, 사법부 등)가 특정 긴급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 중앙은 고위 지도자가 이끄는 ‘영도소조’를 설립한다.

\* ‘그림자 정부’: 영도소조 산하의 ‘사무실’(610 등)은 흔히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초월하는 권한을 갖는데, 이는 그것이 당의 최고 의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 제도적 위험: 이 시스템은 효율성은 매우 높지만 헌법이 규정한 행정 기관이 아니기에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3. ‘법외’ 통치와 ‘의법치국’의 긴장 보고서에서 언급된 ‘법외 지위’는 이 사건의 법적 위험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 병행 체제: 중국에는 법률 프레임워크(헌법, 소송법)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당내 지시에 기반한 운영 시스템이 존재한다.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대개 당내 지시가 우선한다.

\* 제도적 부채: 가오이천과 같은 관리들은 재임 기간 당시 최고층의 정치적 지시를 수행했으나, 수년 후 정치 환경이 변하거나 ‘반부패 정리’가 필요할 때 과거의 법외 권한은 법적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장기적 정치 및 법적 배상 책임’을 야기한다.

4. 2018년 이후 기구 개편(위험 예방 및 해소) 2018년 610명칭을 폐지하고 기능을 공안부와 정법위로 통합한 것은 이중적인 의도가 있다.

\* 규범화: 투명도가 극히 낮았던 ‘임시 기구’를 더 공식적인 부처 관리 아래 두려는 시도다.

\* 책임 통합: 기구 중복으로 인한 정책 혼선을 줄이고 모든 정치 안보 사무에 대한 중앙 정법위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강화한다.

## 요약: 가오이천 사건의 심층적 의도

2026년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법외 기구’에 깊이 관여했던 가오이천과 같은 고위 관리를 기소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신호를 보낸다. 1. 정치적 숙청의 철저함: 반부패의 이름으로 과거 특정 권력 중심(저우융캉 시기 등)의 잔재 세력을 제거한다. 2. 통치 모델의 미세 조정: 핵심 논리(당의 정법 관리)는 변하지 않았으나, 형식상으로는 악명 높은 특설 사무실에 의존하기보다 더 ‘정규적인’ 정법 채널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미세 조정은 본질적으로 중공 내부의 권력 투쟁에 속하며, 당의 과오를 완전히 바로잡는 것이 아니기에 파룬궁 탄압이라는 정치 운동의 종단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2026년 병오(丙午)년 설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1월 18일, 싱가포르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머라이언 공원에 모여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리며 마음속 깊은 감사를 진실하게 표현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02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750만 2151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